

## 목양 칼럼

### 서울 노량진 교회 비전 트립 평가회

8월2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노량진 교회 비전트립팀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지난 금요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일정은 맨해튼, 워싱턴 D.C.,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미국 대학들을 탐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평가회를 CCM실에서 가졌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먼저, 새롭게 배운 점(informed), 다시 확인한 점(confirmed), 그리고 변화된 점(reformed)으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감을 나누게 했습니다.

#### 1. 새롭게 배운 점(informed)

- 1)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1730-1760)의 중심지였던 메사추세츠의 노샘프턴 교회(Northampton Church)를 보면서 교회도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가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2) 민박 가정의 친절함 섬김을 통하여 섬김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 3) 버클리 음대를 방문하면서 음악을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기면서 할 때 자신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2. 다시 확인한 점(confirmed)

- 1)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림으로 혹은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2) 미국이 마약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직접 그런 모습을 볼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3) 하버드, MIT, BU 등 미국의 대학들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직접 그 대학교들을 방문하고, 또 강의실에 앉아 보기도 하니 새로운 각오가 생겼습니다. 나의 진로에 대해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비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3. 변화된 점(reformed)

- 1)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변 환경과 친구들의 영향이 컸었는데,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진로를 생각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것이 이번 비전 트립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계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2) 세 번 참석하신 예일교회 새벽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분위기가 마음을 울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 3) 청교도 신앙에서 시작한 미국이 이제는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보며, 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CCM)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CCM 청년부 모임	오후 7:30 (금요일)	예일 카페	
영어 아침 기도회	오전 7:30 (매월 첫째 토요일)	CCM 예배실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Y

## VISION 2024 HEALING MARCH

###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치유와 회복공동체
- 능력있는 기도 생활

###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 주일예배

제 32권 32호 주후 2024년 8월 11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홍정자목사	우영주목사	백에스라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252장		
기도	박정호집사	김현수장로	손정민장로
성경봉독	히(Heb.) 10:36-11:3		
찬양	글로리아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믿음으로 전진하라 김중훈목사		
찬송	302장		
봉헌	다같이		
봉헌찬송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수요예배 8월 14일 오후 8:30

- 기도: 김경미권사
- 말씀: 오세준목사
- 다음주 기도: 4선교회 헌신예배

###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 주일 기도

- 1부: 김상진집사
- 2부: 김동환장로
- 3부: 김용호장로

### 8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김주양집사
- 3부: 강문구권사, 김진화집사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사랑선교회 월례회 및 목장예배: 8월 18일 (주일) 3부예배 후, 친교실
- 유년부 수련회: 8월 18일(주일) - 20일(화), Tuscarora Inn & Conference Center, Mt Bethel, PA  
문의 및 신청: 박에스터 전도사
- 중고등부 수련회: 8월 18일(주일) - 22일(목), Tuscarora Inn & Conference Center, Mt Bethel, PA  
문의 및 신청: 유명근 목사
- 담임목사 동정: 휴가 (8/12-16)
- 교역자 동정: 우영주목사 휴가 (8/12-16; 8/19-23)
- 2024 예일 여름학교: 7월 8일(월) - 8월 16일(금), 평일 오전 9시 - 오후 3시
- 강단꽃 장식: 오현섭장로  
사랑의 식탁: 오현섭장로                      김상진집사&김신애권사(예형 생일)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송광수장로                      다음주: 오현섭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2마을                                      다음주: 3마을
- 8월 헌금위원  
1부예배: 전미경권사 한문차집사                      2부예배: 김선태집사 정수미란권사 김오신권사 박민애권사  
3부예배: 김영애권사 김정현권사 김동욱집사 박보라집사 전복희집사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9:30am & 11am Services. Zoom QR Code:



새가족

- 김자영성도 (넘치는목장, 5선교회, Plainview, NY 11803)

교우동정

- 한국방문                      최경훈집사&유안나집사

행사예고

- 08/21(수)                      4선교회 헌신예배
- 09/10(월)-11(화)                      뉴욕노회 정기노회

예수님의 눈물(눅 19:41-48)

우리는 언제 옵니까? 슬플 때, 기쁠 때, 아플 때, 억울할 때, 감동될 때, 그리고 심지어 남이 불쌍하게 보일 때도 옵니다. 눈물은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백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환영하는 인파들의 모습과는 정 반대로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호, 영광, 평화였지만, 그 속에는 멀지않아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1. 눈 먼 백성은 불행이 닥쳐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봅시다.
  - 1)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이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속죄를 위한 제물을 백성들이 가져 올 때 성전 안에 검역실을 마련하고 성전에서 파는 동물만 합격시킵니다. 그러나 그 값은 비둘기의 경우 성전 밖에서 사는 비둘기 값의 25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장사꾼들은 대제사장에게 큰 뇌물을 주고 그 상권을 산다고 합니다. 이러니 성전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 2)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예수님이 보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 1)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다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더럽히는 공연이었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 2)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 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마 24:15)이라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단 9, 11, 12장)이 B.C. 167년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이루어졌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과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둘 하나도 둘 위에 남기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결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 할 거룩한 곳에 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 가슴에 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이 시대를 위해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영적 각성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오는 재난을 면하게 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소수의 이민자들이지만 미국에서 새벽기도하는 민족은 한인 이민자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시대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방송설교

- KRB FM 87.7/94.3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